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신철균(申鐵均)*

황은희(黃銀喜)**

김은영(金恩映)***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의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구대상으로는 교육주체로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를 포함하고, 자유학기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구성원 인식 측면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으나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강하였다. 자유학기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 등 교육활동 측면에서는 교수-학습 변화가 크게 두드러졌으나, 교사들은 평가 기록과 공정한 평가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정책의 지원환경 측면에서는 인력풀 지원과 체험처 확보 지원 등에서 학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첫째,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 연수 및 홍보 전략을 실행하고, 둘째,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 간의 연계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교사연구회 등 자발적인 교사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교육주체, 교육활동, 지원환경

* 제 1저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교신저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I. 서론

자유학기제 정책은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자유학기제는 “진흙탕 속의 중학교(Muddle in the middle, Bradley, 1998)”, “잊혀진 존재(Dinham & Rowe, 2008)”라는 표현처럼 “중 2”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의 정체성과 문제점에 대한 고민 속에서 등장하였다. 세계적인 교육 흐름도 자유학기제가 등장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은 바로 학생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학교를 변화시킬 지에 대한 접근 방법(Shahar, 2007)에 대한 고민과 선진국의 역량중심 교육 과정 흐름(정광순, 2013)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PISA의 높은 학업성취도 덕분에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지만, 학생의 낮은 행복지수(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2, 2013)와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등의 저조한 핵심 역량 수준(김기현 외, 2010)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Ripley(2013)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시험으로 점철되어 있는 “압력밥솥”과 같고, 한국의 학생들은 로봇에 가깝다’는 혹독한 지적을 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유학기제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등장하였다. 자유학기제는 2013년 38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2016년에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급속한 양적 팽창에 있어 정책의 초기 단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 짓는 시금석으로서 중요하다(Tubin, 2009). 정책 실행의 초기에 대한 실태 파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 관련된 연구들은 교사 측면으로만 실태를 파악한다거나(김은정, 2013; 홍후조 외, 2013),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의 의견을 직접 듣지 않는 등(최상덕 외, 2014) ‘연구 대상’에 있어 제한점을 보인다. 또한 ‘연구 영역’ 측면에선 교육과정이나 평가 등 특정 영역 중심으로만 자유학기를 분석(정영근 외, 2014; 지은림 외, 2014; 황규호 외, 2013 등)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제한점을 넘어, 본 연구는 연구 ‘대상’ 측면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식과 태도를 포함하고, 연구 ‘영역’ 측면에선 자유학기제의 주요 영역인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 진로교육 등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 활동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자유학기제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종합적 실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정책의 단면이 아닌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 활동 실태, 지원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를 운영한 학교의 모습이 기존 일반학교의 교육 실재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파악해 봄으로써 자유학기제 운영의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개선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유학기제 정책의 추진과정과 교육활동 특징

가. 추진과정

자유학기제 정책 추진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 정책이 시작된 ‘정책 도입기’, 연구·희망학교를 통해 현장에서 예비적으로 실시한 ‘시범 운영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는 ‘전면 확대기’이다.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기를 실시하는 전면 확대기는 2016년부터 시작되므로, 앞의 두 단계를 중심으로 추진 과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인 ‘정책 도입기’는 공약 발표와 시범운영계획 발표 시기까지이다. 자유학기제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발표(2012. 11. 21.)되면서 대중 앞에 등장하였으며,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교육부의 국정 업무 보고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공약 초기에는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방향, 시기 등에 대해 많은 논란과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자유학기제 정책에서 무엇을 핵심 목적으로 둘 것이냐에 대해 첨예한 논란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진로 체험’이란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점차 ‘교수·학습 개선과 교육과정 혁신’, 이를 통한 ‘교육 전반의 변화’로 목표점이 선회되어 갔다(최상덕 외, 2015). 이후 자유학기제의 큰 틀과 구체적 운영 방법을 담은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교육부, 2013. 5. 28.)이 발표되면서 자유학기제의 구체적 모습은 현장에 전달되었다. 여기에서 밝힌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인성·사회성 등 미래지향적 역량을 함양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으로서 자유학기제가 협의의 진로·직업체험의 범위를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학기제 추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발대식(2013. 6. 4.)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42개 연구학교 관계자들이 모여 자유학기제의 출발을 알렸으며,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협업체체를 구축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시범 운영기’는 연구학교와 희망학교 운영의 시기이다. 2013년 2학기부터 운영된 42개 연구학교를 필두로, 2014년 1학기에 추가 지정·운영된 38개 연구학교 포함 총 80개교의 연구학교가 선두에서 자유학기제를 이끌었다.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구성원, 특히 학생의 만족도가 높게 나오자 희망학교도 늘어났다. 물론 시·도교육청 평가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비율이 지표로 포함된 영향도 있지만, 2014년에 희망학교가 732개교에서 2015년엔 2,471개교로

확대될 정도로 현장에서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는 정책 초기 설정한 전체 중학교 대비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비율인 2014년 25%, 2015년 50% 운영 계획을 훨씬 넘어선 비율로 전체 중학교의 79.6%의 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하는 수준이다. '시범 운영기'에는 학교에서 자유학기 운영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험처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자유학기 지원센터에서 부처·청, 공공·민간 기관 등과의 MOU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 전면 확대를 앞두고 자유학기제의 법적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예고된 개정안에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해, 학생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정책 도입과 시범 운영 단계를 거쳐 자유학기제는 추진되어 왔으며, 2016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기를 운영하는 전면 확대기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자유학기제 추진 과정

단계	추진과정	일시	내용, 특징
정책 도입기	• 자유학기제 도입 대선공약 발표	2012.11.21.	• 대선공약 제시
	•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국정목표 발표	2013.2.21.	• 중학교 대상, 단계적 확대(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
	• 교육부 국정 업무 보고	2013.3.28.	•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안) 발표	2013.5.29.	• 추진 방향, 지원방안, 로드맵 제시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발대식	2013.6.4.	• 주요내용 -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 및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운영방향 발표 - 협력기관 협약서 체결
시범 운영기	• 연구학교 운영	2013.9.~ 2016.2.	• 연구학교(3년간 운영) 80개교 - 매년 약 3천만원 내외 예산 지원
	• 희망학교 운영 및 확대	2014~2015	• 희망학교 732개교 운영(14년) • 희망학교 2,471개교 운영(15년)
	• 체험인프라 협력기관 구축	2015~	• 교육부, 지원센터 중심으로 142개 이상의 기관과 협력체제 마련 • 시·도교육청별 협력기관 구축
	• 초·중등교육법 자유학기제 법제화	2015.4.20.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시안 발표	2015.8.6.	• 운영 학기(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 학교 선택) 등 운영 방안 발표
전면 확대기	• 전면 실시(예정)	2016.3	• 전체 중학교

나. 자유학기 교육활동 특징

자유학기 교육활동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한다. 자율적 교육과정이란 의미는 학교 차원에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탄력성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생 차원에서 학생 스스로 원하는 교육과정을 요구하고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자율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오후의 자율과정에는 진로 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학생 선택프로그램을 학교별 여건에 맞춰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화 하였다.

두 번째는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이다. 학습 방식의 변화는 교사 등 타인이 주입하는 교과서 지식의 암기와 수동적 학습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필요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탐구하며 능동적으로 학습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기초로 학생의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며 학생 참여형·활동형 수업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평가 방법의 변화이다. 중간·기말고사 시험 등 지필식 총괄평가는 폐지하되 포트폴리오 평가 등 과정 중심적인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장을 돕는다. 교과별로 핵심성취 기준을 마련하여 학습 목표의 도달 여부를 파악하고, 평가의 결과는 수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서열화된 점수 위주의 시험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습 과정을 살펴 학생의 다양한 성향과 기질을 고려하여 피드백 할 수 있는 평가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며 진로체험 활동과 학생 선택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는 학교를 개방하고 지역사회의 공공기관과 회사 등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진로직업 경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한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 내·외로 확대하고 진로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운영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자유학기제의 교육 활동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자유학기제의 교육 활동 특징

구분	자유학기제의 교육활동 특징	기존 교육의 유지
교육 과정	·탄력적·개방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학생 선택권 제공) ·공통과정(교과)+자율과정 4개 영역 운영 (진로탐색, 동아리, 예술·체육, 학생 선택프로그램)	·고정적·폐쇄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제한, 학생 선택권 제한) ·교과 중심의 공통과정 운영
수업 방식	·자기주도적 학습(능동적 학습) ·학생능동형, 활동형·참여형 수업	·타인주입식 학습(수동적 학습) ·학생수동형, 주입식·강의식 수업
학습 평가	·과정 중심, 특성 중심 평가 (중간, 기말고사 폐지)	·결과 중심, 점수 중심 시험 (중간, 기말고사 중심 평가)
학교-지역간 프로그램	·학교 개방형 ·학교-지역사회간 협력적 관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진로체험, 학생 선택 프로그램 등 운영	·학교 폐쇄형 ·학교-지역사회간 고립적 관계 ·학교 내부에서 활동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한적 체험학습

출처: 신철균(2013: 22)을 수정·보완함.

2. 자유학기제 관련 선행연구

자유학기제 정책이 도입 추진된 이후 약 2년 동안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주로 자유학기제 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시행 초기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제언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연구시기에 따라, 연구학교 출범 ‘이전’ 연구들은 해외사례 분석, 법적 쟁점 분석, 관계자 요구조사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며, 연구학교 운영 ‘이후’ 연구들은 연구학교 운영계획서 분석, 교육과정 분석, 사례조사, 구성원 인식조사 등 현장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가 학교에서 운영되기 ‘이전’ 연구와 운영 ‘이후’ 연구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의 자유학기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중학교 시기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중심 수업으로의 교육 개선을 지향한다는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지지받고 있다(최상덕 외, 2013; 홍후조 외, 2013; 손희권, 2013; 김은정, 2013). 그러나 학교구성원의 이해가 낮고 성적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 진로체험과 관련한 인프라 부족 문제, 지역적 여건의 편차 등의 우려와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점진적, 단계적 도입(홍후조 외, 2013; 손희권, 2013; 박균열, 2014), 다양한 학기 적용의 선택 허용(홍후조 외, 2013; 김진숙, 2013), 국가 교육과정 개편, 행·재정적 지원, 법적 기반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황규호 외, 2013; 이덕란, 2014).

초기 연구들은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는 시점에 교육관계자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고, 어떠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자유학기제가 학교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실행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연구이므로 현장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둘째,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들은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 진로교육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 등 수업 개선과 관련된 논의들은 자유학기제가 미래 사회를 대비한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으로 수업을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연구학교 운영 결과들을 살펴보면, 학교들은 공통교과의 시수를 감축하여 자율과정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학생 선택의 다양한 자율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진 외, 2014; 이병환 외, 2015; 정영근 외, 2014). 또한, 자유학기제에서는 수업이 참여 활동형으로 변화되었으며 융합수업, 협력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이 시도되는 점, 대안적 평가 방법이 시도되는 점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최상덕 외, 2014; 정영근, 2014; 이재창, 2014, 이은영 외, 2014; 옥현진, 2014; 정병흠, 2014). 그러나 아직까지 융합수업, 과정중심 평가 등 새로운 수업 및 평가에 대한 자료나 정보 부족, 자율과정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 제고 문제 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이재창, 2014; 김미진 외, 2014).

자유학기제의 진로교육에 관한 논의들은 중학교 시기의 진로탐색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자유학기제를 통해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자유학기제 동안 학생들의 진로체험 활동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학교의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인프라의 부족 및 편차 문제, 지역사회의 연계 및 인식 부족 문제(김승보 외, 2014; 장현진 외, 2014) 등 제도적 지원 문제와, 체험 위주로만 진로교육이 운영되거나(이재창 외, 2014), 교과 내 진로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점(김은정, 2013; 유정애, 2014) 등 운영상 개선점이 지적되었다.

연구학교 출범 이후 연구들은 자유학기제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들이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진로교육 등 특정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특정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교사, 학생, 학부모 구성원 모두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최상덕 외, 2014; 장현진 외, 2014; 정영근 외, 2014) 자유학기제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는지 종합적 실태를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나타난다. 더욱이, 자유학기를 운영한 학교의 모습이 기존 일반학교의 교육 실체와 어떻게 다른지를 실증적으로 비교하여 실태를 파악한 연구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자유학기제 관련 선행연구들이 주제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시기적 한계로 여전히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면밀한 탐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배경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자유학기제 정책의 단면이 아닌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 활동 실태, 지원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식과 태도를 포함하고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 진로교육 등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 활동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를 운영한 학교의 모습이 기존 일반학교의 교육 실체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파악해 봄으로써 자유학기제 운영의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개선의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표집 방법 및 표집 대상, 설문에 사용한 설문 조사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설문대상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를 기준으로 동일 지역, 유사 학군, 남·여 학교 비율, 학교 규모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비운영학교를 운영학교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를 80개교씩 균등하게 표집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표집 학교 중 운영학교 80개교(응답률 100.0%), 비운영학교 71개교(응답률 88.8%)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설문 대상은 표집된 운영학교 및 비운영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이며 교사 2,702명(유효응답률 92.18%), 학생 3,020명(유효응답률 95.99%), 학부모 2,203명(유효응답률 92.52%)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또한 설문 대상학교를 소재 지역에 따라 분류해보면 운영학교는 대도시 지역 46.3%(37개교), 중·소도시 지역 16.3%(13개교), 읍·면지역 37.5%(30개교)이며 비운영학교는 대도시 지역 45.1%(32개교), 중·소도시지역 22.5%(16개교), 읍·면지역 35.1%(23개교)이다. 설문 대상 및 학교수별 분포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설문 대상 및 학교수

설문 대상 및 학교수	운영학교	비운영학교	소계	총계	
교사	1,469명 (34.7%)	1,462명 (34.6%)	2,931명 (34.77%)		
학생	1,572명 (37.2%)	1,574명 (37.2%)	3,146명 (37.2%)	8,458명 (100.0%)	
학부모	1,188명 (28.1%)	1,193명 (28.2%)	2,381명 (28.1%)		
학교수 (지역규모별)	대도시	37교 (46.3%)	32교 (45.1%)	69교 (45.7%)	
	중소도시	13교 (16.3%)	16교 (22.5%)	29교 (19.2%)	151교 (100.0%)
	읍면지역	30교 (37.5%)	23교 (32.4%)	53교 (35.1%)	

2. 설문도구

가.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설문조사 분석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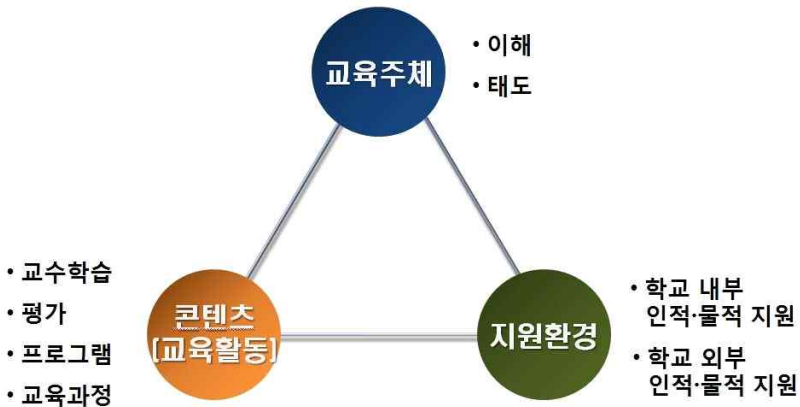
자유학기제 운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 변화를 촉진하는 교육 실제의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Cohen et al.(2003)은 교육 주체, 콘텐츠(contents), 그리고 지원 환경(environments)을 교육의 실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제안하였다. 세 가지 요소는 학교 교육 활동의 전반적 실태와 수준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 부분으로서, 자유학기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지 그 실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육 주체(교사, 학생, 학부모)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정책 이해와 태도를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의 핵심내용과 관련된 콘텐츠(교수·학습, 평가,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가 학교교육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세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를 변화시키는 힘은 교육의 주체인 구성원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Fullan, 2001; 김효정, 2011). 즉 교사의 지식과 기술, 행동, 학생의 경험과 지식, 수업태도 등 구성원이 어떠한 지식, 행동,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교육 실재를 결정짓게 된다(Cohen, et al., 2003). 또한, 최근 학교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성과에 대한 역할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신상명, 2004). 자유학기제의 경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주요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Lim, 2003). 이에 교육 주체(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지식과 경험)와 태도(긍정적 태도 및 자율

적·협력적 노력)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를 변화시키는 중심변인은 교육과정, 교수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설명된다(최준열, 2000; Conley, 1993; Poster, 1999). 자유학기제의 핵심내용은 교육과정의 재구성, 학생 참여·활동형 교수·학습 방법,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비실시하는 평가 체제의 변화에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운영의 주요 변인으로 콘텐츠(교수·학습, 평가,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셋째, 지원 환경적 요인 역시 학교교육의 변화를 촉진 또는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학교 구성원은 사회의 구성원이며, 학교는 이를 둘러싼 다양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학교 내적으로 조직특성(인력운용, 시간 활용 등), 학교 문화, 외적으로는 지역사회 특성, 연수 및 컨설팅 등 외부지원, 관할 교육청의 규정 및 정책, 사회적 분위기 등은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자유학기제 역시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이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과 학교 교육 개선의 주요 변인으로 환경적 요인(학교 내적 요인, 학교 외적 요인)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를 분석하는 틀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분석 틀

나. 설문조사의 영역별 내용

설문조사의 내용은 교육주체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와 태도, 학교의 교육활동 운영 실태, 학교 내·외의 지원환경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의 리커트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첫째, 교육 주체에 대한 질문은 교육 주체의 이해와 태도로 구분하였다. ‘이해’ 영역에서는 자

유학기제의 목적과 취지,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학생 평가에 대해 교육 주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태도’ 영역에서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필요성 인식, 정책에 대한 신뢰, 자율적인 노력, 협력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분석하여 자유학기제 정책에서 교육 주체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둘째, 교육 활동 영역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셋째, 지원 환경 영역은 학교 내부의 지원 현황과 학교 외부의 지원 현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학교 외부는 다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운영 준비 실태를 파악하여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4> 설문조사 영역별 조사 내용

대영역	하위영역	세부 영역	문항 내용	
교육 주체	이해	목적과 취지	자유학기제 취지·목적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변화	
		교수학습	교수·학습의 변화	
		평가	학생 평가의 변화	
	태도	구성원의 자율적 노력	취지에 맞는 수업준비	
		"	교과내용 재구성 노력	
		구성원의 협력적 노력	동료 교사와 협력	
		"	교과별 동료교사 협의	
	교육 활동	교수 학습	교수학습 운영 실태	학생 참여형 수업
			"	융합 연계수업 진행
		평가	평가 운영 실태	과정 중심 평가 진행
			"	학생특성에 맞는 평가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실태	원하는 프로그램 참여
			"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교육 과정	교육과정 운영 실태	교육과정 재구성		
	"	교과, 교과외 활동		

대영역	하위영역	세부 영역	문항 내용
지원 환경	학교 내부	보조 인력	보조·행정 인력 적절
		구성원 업무 배분	구성원 업무 배분
		인프라 발굴 노력	학교장 인프라 발굴
		협력적 풍토 조성	학교장 협력적 풍토
		학교 시설	학교 시설(공간) 적합
	학교 외부	예산	예산 지원 적절성
		인력풀	지역사회 인력풀 구축
		우수 강사 섭외	우수 외부강사 확보
		체험처의 다양성	체험처 다양성
		체험처의 질	체험처 질
		연수 지원	연수 제공 적절성
		홍보	홍보 적절성

IV. 연구 결과

1. 구성원의 인식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을 구성원의 이해와 태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구성원의 이해는 인지적 측면의 내용으로서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취지, 자유학기제에서 추구하는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특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구성원의 태도는 정의적 측면의 내용으로서 자율적 노력, 협력적 노력, 긍정적 태도, 필요성 인식, 정책 신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자유학기제의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단위: 점, 표준편차)

구분		운영학교	비운영학교	t	
이해	목적과 취지	4.08(0.85)	3.56(1.00)	25.06***	
	교육과정	3.94(0.88)	3.41(1.00)	25.07***	
	교수·학습	3.93(0.88)	3.34(1.00)	27.85***	
	평가	3.82(0.92)	3.29(1.01)	24.21***	
	계	3.94(0.78)	3.40(0.90)	28.66***	
태도	구성원의 자율적 노력	3.51(1.09)	3.09(1.06)	17.42***	
	구성원의 협력적 노력	3.85(0.98)	3.44(1.00)	18.61***	
	긍정적 태도	3.74(0.99)	3.49(1.02)	10.66***	
	필요성 인식	3.86(0.96)	3.60(1.01)	11.63***	
	정책 신뢰	3.58(0.85)	3.15(0.88)	12.67***	
	계	3.71(0.78)	3.37(0.82)	18.63***	
전체 (인식)	지역별 차이 검증	대도시	3.81(0.72)	3.35(0.79)	
		중소도시	3.80(0.70)	3.37(0.76)	
		읍면지역	3.79(0.71)	3.40(0.77)	
		계	3.80(0.72)	3.37(0.78)	25.79***
	F	0.55	1.89		

* $p < .05$, ** $p < .01$, *** $p < .001$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의 경우 운영학교의 전체 평균 3.80, 비운영학교의 전체 평균 3.37로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인식수준을 보였으며, 운영학교의 인식 정도가 비운영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가 구성원의 태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 차이는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바로 적용해야 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인 운영의 필요성에 의한 연수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의 이해는 매우 높았으나, 정의적인 영역의 태도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율적·협력적 노력의 수준은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한 이해의 수준보다는 낮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를 하위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해' 영역에서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 모두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고, '평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낮았다. '태도' 영역에서는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 모두 자유학기제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가장 높았다. 또한 운영학교의 경우 '정책 신뢰'(3.58점), 비운영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준비를 위한 구성원의 '자율적 노력'(3.09점)과 '정책 신뢰'(3.15점) 부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율적 노력은 구성원 스스로 자유학기제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묻는 내용으로서, 교사는 교과내용 재구성을

실시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자유학기 취지에 맞는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자율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책 신뢰 영역은 자유학기제 비전의 타당성, 운영 과정의 일관성, 향후 지속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문항으로서, 운영학교(3.58점)와 비운영학교(3.15점) 모두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 교사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정책 신뢰에 대한 세부 문항별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적의 타당성은 운영학교는 4.01점, 비운영학교는 3.45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그러나 운영과정의 일관성은 운영학교는 3.46점, 비운영학교는 3.10점으로 떨어진다. 또한, 자유학기제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질문에 운영학교는 3.27점, 비운영학교는 2.92점으로 인식과 태도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처럼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의 지속성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비운영학교에서는 정책 지속성에 매우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책 신뢰의 세부 문항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태도 영역의 정책 신뢰 세부문항 분석

(단위: 점, 표준편차)

문항내용	운영학교	비운영학교	t
자유학기제 비전과 목적의 타당성	4.01(0.85)	3.45(0.96)	15.91***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의 일관성	3.46(0.97)	3.10(0.94)	9.64***
자유학기제 운영 향후 지속성	3.27(1.06)	2.92(1.04)	8.66***

*p<.05, **p<.01, ***p<.001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운영학교의 경우 대도시 소재 학교 구성원, 비운영학교의 경우 중소도시 소재 학교 구성원의 인식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정책에 대한 이해나 태도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는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교육활동 실태

교육 활동 운영 실태는 자유학기제에서 추구하는 교육 활동이 학교에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동적 측면에 관한 내용이다. 자유학기제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교육 과정 수립과 이를 토대로 한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 운영, 과정 중심의

평가 시행, 다양한 학생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 실태 영역에 대한 조사는 교수·학습 운영, 평가 운영,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운영의 소 영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먼저, 교수·학습 운영 영역은 학생 참여형 수업, 교사들의 융합·연계 수업 진행의 실천 정도를 묻는 문항이며 평가 운영 영역에서는 과정 중심의 평가, 개별 학생에 맞는 기록의 실천 정도를 확인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영역에서는 학생이 희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는 핵심성취 기준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과 자율과정 혹은 교과 외 활동의 운영 정도를 확인하였다. 학교 교육 활동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교육 활동 운영

(단위: 점, 표준편차)

구분	운영학교	비운영학교	t	
교수·학습 운영 실태	3.90(0.75)	3.18(0.86)	33.62***	
평가 운영 실태	3.97(0.74)	3.71(0.74)	13.03***	
프로그램 운영 실태	3.94(0.84)	3.80(0.85)	6.38***	
교육과정 운영 실태	3.86(0.81)	3.63(0.81)	10.33***	
계	3.92(0.67)	3.58(0.66)	19.06***	
지역별 차이 검증	대도시	3.97(0.66)	.	
	중소도시	3.85(0.69)	.	
	읍면지역	3.87(0.67)	.	
	F	9.10***	1.81	.
	Scheffe 사후검정	대도시> 중소도시,읍면지역	.	.

* $p < .05$, ** $p < .01$, *** $p < .001$

교육활동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 운영학교의 경우 전체 평균이 3.92점으로 자유학기제에 서 강조하는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교육활동 운영 실태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유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맞는 평가의 운영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 3.97점), 다음으로는 자유학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평균 3.94점), 교수학습 운영(평균 3.90점)의 순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유학기제 비운영학교에서는 운영학교에 비해 전반적으로 교육활동 운영 실태가 낮게 나타났다.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의 교육활동 실태를 비교해 볼 때, 특히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교수·학습 운영 실태’였다. 이 영역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운영학교(3.90점)와 미 실시한 비운영학교(3.18점) 사이의 격차가 0.72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교과 수업 변화의 핵심인 학생 참여와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운영이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지 않는 일반 학교에서는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유학기제의 교육 활동 실태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본 결과,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경우 대도시가 평균 3.9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읍·면지역이 3.87점, 중·소도시 3.85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는 대도시에서 자유학기제의 교육활동 운영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3. 학교 내·외의 지원 환경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 내·외의 지원 정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영역은 학교 내부와 외부의 인적·물적 지원, 연수, 홍보 등으로 구분하였다. 내부의 인적 지원은 수업이나 행정 보조 인력의 적절성, 구성원 업무의 효과적 분담이며 외부의 인적 지원은 지역사회 인력풀 구축 정도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 강사 확보 적절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의 물적 지원은 학교 시설의 적합성을 질문하였으며, 외부의 물적 지원은 예산 지원, 체험처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의 인적 지원 문항과 예산 지원 등 일부 문항은 비운영학교에 적합하지 않아 설문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이나 교육 활동 운영 영역에 비해 학교 내·외의 지원 영역은 전반적으로 3.5점에 못 미치는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경우 우수 강사 확보의 용이성(3.11점), 구성원의 업무 배분(3.14점), 학생 체험 활동을 위한 체험처의 다양성(3.23점), 체험처의 교육 프로그램 질적 수준(3.43점)은 보통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나, 수업 보조 인력·행정 인력 지원의 적절성은 2.73점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서도 지역사회 인력풀 구축의 적절성(2.91점)과 우수한 외부강사 확보의 용이성(2.98점)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외의 영역에서는 학교장의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이 3점대 초반 점수를 보였는데, 인적 지원의 부족뿐만 아니라 체험처의 다양성(3.08점)과 체험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3.18점)도 낮은 점수를 보여 학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외부의 연수 지원과 홍보도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 간에 가장 격차가 큰 항목은 외부 인력풀 구축 정도와 홍보의 적절성 부분이었다. 향후 전면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비운영학교에 외부 인력풀의 지원과 다양한 체험처 확보, 연수,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 내·외의 지원

(단위: 점, 표준편차)

구분	운영학교	비운영학교	t	
학교 내부	보조 인력	2.73(1.08)	.	
	구성원 업무배분	3.14(0.97)	.	
	인프라 발굴노력	3.69(0.95)	3.57(0.93)	3.34***
	협력적 풍토조성	3.82(0.93)	3.67(0.95)	4.13***
	학교시설	3.43(1.03)	.	.
학교 외부	인력풀	3.43(1.04)	2.91(0.92)	15.30***
	우수강사 섭외	3.11(0.97)	2.98(0.93)	3.45***
	예산	3.39(0.96)	.	.
	체험처 다양성	3.23(1.09)	3.08(1.03)	5.33***
	체험처 질	3.43(0.97)	3.18(0.97)	9.88***
	연수 지원	3.30(0.90)	3.05(0.93)	7.08***
	홍보	3.65(0.93)	3.15(1.00)	19.33***
계	3.48(0.79)	3.22(0.82)	12.11***	
지역별 차이 검증	대도시	3.52(0.79)	3.26(0.83)	.
	중소도시	3.42(0.74)	3.20(0.77)	.
	읍면지역	3.45(0.80)	3.15(0.84)	.
	F	3.95*	4.81**	.
	Scheffe 사후검정	읍면,대도> 중소,읍면	중소,대도> 읍면,중소	.

*p<.05, **p<.01, ***p<.001

학교 내·외의 지원 정도를 학교 소재 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 모두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학교 소재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교육활동의 경우 운영학교에서만 차이가 있었던 반면, 학교 내·외의 지원의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 모두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이 낮게 나타나 교육활동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V. 논의

1. 자유학기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가. 자유학기제의 필요성 공감 및 긍정적 인식 형성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비교적 높은 이해와 긍정적 태도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운영학교들은 비운영학교에 비해 자유학기제에 대해 높은 긍정적 태도와 인식수준을 나타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운영학교가 비운영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해 측면을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평가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유학기제의 정착을 위해 교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자유학기제의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도 측면에서는 운영학교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협력적 노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유학기제의 필요성과 이의 실현을 위한 협력적 노력과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 간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성원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사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와 태도 면에서 가장 높은 응답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학생, 학부모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유학기제 시행 주체로서 교사들은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들의 경우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 수준 및 태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 실시에 앞서 실질적인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의 필요성 및 운영 방식,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유학기제 홍보 강화 및 교육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김진숙, 2013: 180).

요컨대, 해당 정책을 경험한 이후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만과 실망이 뒤따를 수 있지만 자유학기제 정책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과 실천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2016년에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심지어 2015년에 전면 확대를 희망하는 시·도 교육청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운영학교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이나 지원 환경 등에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예컨대 자유학기제 관련 연수나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나. 자유학기제 운영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불신

자유학기제 정책이 교수·학습의 실질적 변화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즐거움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크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비전과 목적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책 목적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자유학기제 운영 과정의 일관성과 향후 지속성에 대해 다른 문항보다 유독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자유학기제 정책의 향후 지속성을 묻는 “자유학기제는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는 문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하다. 2013년 운영학교에 비해 2014년 운영학교는 더 낮고, 일반학교 구성원의 인식은 2점대 중반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 향후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기대 및 믿음이 낮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 및 정착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는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요구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구성원의 인식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정착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35.5%)였다. 구성원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교사의 경우 1순위, 학부모의 경우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교수·학습 변화 가능성 및 평가에 대한 부담

가. 자유학기제 운영 후 교수·학습의 변화 촉진

학교 교육 활동 실태 역시 구성원의 이해와 태도 영역과 마찬가지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가 비운영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총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점수가 운영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 일반학교 보다 학생 참여형 수업, 교과융합·연계 수업, 과정중심의 평가, 개인 특성에 맞는 평가결과의 기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더욱 활발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교수·학습 운영 실태’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교와 미실시한 비운영학교 사이의 격차가 0.72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

그리고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들을 대상으로 2013년과 2014년의 교육 활동 운영 실태를 비교한 결과 ‘교수·학습 운영 실태’의 경우 2013년도의 응답값에 비해 2014년의 응답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의 시행을 통해 ‘교수·학습 운영 실태’가 개선되고,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교수·학습 운영의 변화를 통한 학교 교육 방법 전반의 변화이다.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교수·학습에 대한 높은 이해와 교수·학습 운영 실태 결과가 비운영학교에 비해 운영학교가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걸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응답에서도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 간에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강의식 수업으로는 학생들을 집중시키기가 어렵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발표하고 프로젝트식 수업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역동적 수업이 될 때 수업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고 교실은 활기차게 변화하였다.

나. 학생평가에 대한 교사의 심리적 및 업무적 부담 증가

평가 부담은 새로운 평가 실시에 대한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많은 학생을 서술식으로 작성 기입해야 하는 ‘업무적 부담’으로 구별할 수 있다.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존의 입시 체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들도 기존의 결과 중심의 총괄 평가를 대체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최상덕 외, 2014).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서술형 평가 기록에 대한 부담은 자유학기제에서 교사들에게 큰 짐으로 다가온다.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 교사의 소진(burn-out)으로 내실 있는 교육 활동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하며, 정책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정미경 외, 2013; 정영수 외, 2012).

평가에 대한 ‘업무적 부담’으로서 ‘평가 기입에 대한 부담’을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교육 활동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정착의 큰 저해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수·학습 운영의 변화는 촉진되고 있으나, 한편 평가는 여전히 교사들에게 심리적·업무적 부담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교육활동 수준이 높은 이유가 자유학기제에 의한 것인지, 학교 자체의 역량 때문인지를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여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자유학기제의 영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운영학교 표집 시 운영학교와 동일 지역, 유사 학군, 남·여 학교 비율,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매칭 표집하였기에 자유학기의 영향으로 학교의 교육활동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평가는 이해도는 낮으나 수행평가 활용 등에 대해서 높은 실태를 보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유학기제에서 진행되는 학생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에서는 고부담 시험인 총괄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왔던 중간·기말고사의 빈자리를 어떻게 대체할 지에 대한 걱정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것에 비해 형성평가나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가 학교에서 상당부분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실태가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3. 체험 인프라 구성에 대한 중앙의 지원 및 학교의 체감 저조

가. 업무 분담 및 인력풀 지원 등 학교 내·외의 지원 부족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 활동 실천 정도에 비해 지원 환경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양상을 보인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지원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문제는 자유학기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던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점이며(홍후조 외, 2013; 손희권, 2013), 이러한 문제제기는 진로교육 중심의 자유학기제로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김승보 외, 2014; 장현진 외, 2014). 본 연구에서는 인력 및 인프라 측면을 학교 내·외부, 인적·물적 지원, 연수 및 홍보로 구체화하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운영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요소 중에서도 보조인력 배치 및 구성원의 업무 배분, 우수강사 섭외, 다양한 체험처의 확보 등과 관련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 내부 구성원의 업무 배분과 관련하여 낮은 응답값을 보인 것은 자유학기제가 특정 학년에만 시행됨에 따라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와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중에서도 인프라 구축 등 어려운 업무를 담당한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는 자유학기제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 이러한 업무량 차이를 고려한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와 비 담당교사 간의 업무 조정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한편, 외부 인적 지원 측면에서는 인력풀에 대한 응답 결과에 비해 외부 우수 강사 섭외 항목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외부의 활용 가능한 인력풀과 자유학기 운영을 위해 학교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우수 인력과의 매칭이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적 인프라의 양적 팽창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내적으로는 학내 업무 분장의 효율화, 합리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외부 인력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학교가 필요로 하는 인력의 교육역량 및 질을 규명하고, 그에 맞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여 학교와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에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학교의 교육활동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지원환경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관계수가 높았다(Pearson 상관계수 0.756). 그리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과 교육활동 관계, 교육활동과 지원환경의 관계 역시 모두 0.8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구성원 인식, 교육활동, 그리고 지원환경이 밀접하게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요소만이 아닌 세 요소가 적절하게 갖춰지고 지원되어야 함을 할 수 있다. 향후 자유학기제에 대한 내·외부의 지원환경이 부족할 시에는 자유학기제에서 추구하는 교육활동의 실천 역시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계속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 부족한 체험 인프라 구축에 따른 단위학교의 부담 증가 및 지역 격차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위한 체험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나 중앙 차원의 구축 제공 노력에 비해 여전히 학교 차원의 체감도는 낮다(최상덕 외, 2014: 107). 본 연구의 설문분석 결과에서도 체험처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데, 특히 학교 내·외부 물적 지원에 관한 항목 중 학교 내부시설, 체험처의 질에 비해 체험처의 다양성 부족 항목에 대한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위학교 현장까지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이라 파악되며, 앞으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 비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학교 내·외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온라인 콘텐츠 개발, 지역교육청 지원 강화 등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적절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다만, 외적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자유학기제의 진로교육이 현장체험만을 위주로 하는 교육에 국한되지 않도록 진로교육의 개념을 확대하고, 교과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로탐색 활동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재창 외, 2014).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한 인적 자원 및 인프라 확보 노력과 별도로 실제 이의 집행을 위한 예산 및 연수에 대한 정부 및 시·도 교육청 차원의 지원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자유학기제의 안정적인 시행 및 정착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 확보 및 다양한 체험처 확보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와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의 확보, 연수 지원 등에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자유학기 운영학교에 비해 비운영학교의 연수, 홍보 지원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유학기제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와 연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의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를 높이고 인프라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VI. 요약 및 제언

자유학기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현장에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살펴 보았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은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으나 정책의 일관적 운영과 지속성 측면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강하였다. 교육 활동 측면에서는 교수-학습의 변화 측면이 다른 영역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교사들은 평가 기록과 공정한 평가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지원환경 측면에서는 인력풀 지원과 체험처 확보 지원 등에서 학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유학기제의 정착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수준과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의 경우, 정책이해를 위해 다른 전문성 강화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아직 자유학기제를 실행하지 않은 일반학교에서는 정책운영에 필요한 방법론에 앞서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전히 진로활성화가 정책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많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반면, 운영학교에서는 정책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대해 이해가 높은 편이므로 정책을 실제 운영하기 위한 방법론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 등 교육 활동의 전문성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과정중심의 학생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융합형 수업 방법과 선택형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 학년을 담당하는 일부교사들만 정책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을 학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전체 교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학과 일반학과 간의 연계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의 전후 학기와 프로그램 및 교육 체험 활동을 연결시키고, 교과 간 융합 수업을 준비교육과정과 추후교육과정에도 편성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추구하는 수업 방법 개선이나 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유학기제를 위한 일시적 과제가 아니라 자유학기제를 통해 그 출발점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자유학기제 동안의 기본 교과학습은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이후의 교과학습 및 학교의 교육 활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자유학기의 경험이 다음 학기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연구회 등을 통한 교사의 지속적 전문성 제고 노력이 뒷받침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비록 교사가 자유학기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의 중요성에 동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다면 제대로 된 실행을 기대할 수 없다. 공식적 연수 뿐만 아니

라 교사연구회 등 교사의 자발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교사의 지속적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교사들의 학습공동체는 학교 내와 학교 밖 모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의 실질적인 학습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또한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좌절과 회의에서 벗어나 자유학기제의 비전이 수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해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3.5.28.).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
- 김기현·장영근·조광수·박현준(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미진, 이재창, 임재일, 홍후조(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특성 분석: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보고서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2(2), 215-241.
- 김승보, 장주희, 장현진, 김기현(2014). **자유학기제 체험 인프라 구축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은정(2013).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기술·가정 교과 통합 진로 교육 운용 방안: 가정교과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5(3), 105-121.
- 김진숙(2013). 아일랜드 연계학년제(TY)와 한국 자유학기제 비교. **비교교육연구**, 23(6), 163-183.
- 김효정(2011). 교사의 학교 개혁 실행 영향 요인 간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박균열, 주영효, 고영종(2014).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유학기제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32(1), 25-51.
- 손희권(2013).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헌법적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25(1), 151-180.
- 신상명(2004). 교사평가 방안의 합리성 논의. **한국교원교육연구**, 21(3), 411-437.
- 신철균(2013). 자유학기제의 의미와 향후 과제. 제3회 전남교육학술대회(2013.11.14.). 전라남도교육청.
-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2012, 2013). 한국 어린·청소년 행복지수의 국제비교. 서울: 연세대학교.
- 옥현진(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문식성 교육 실행 양상. **작문연구**, 23, 61-83.
- 유정애(2014). 인문,사회과학편 :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중학교 체육진로교육의 방향과 과제 탐색.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3(6), 235-246.
- 이덕난(2014a).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한 법정정책적 접근 : 자유학기제와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26(2), 125-154.
- 이병환, 권민석(2015). 연구학교 사례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 탐색. **교육문화연구**, 21(1), 51-74.
- 이은영, 손주영, 김예슬, 조재순(2014). 자유학기제 1차 연구학교의 가정교과 관련 운영 실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6(3), 69-89.
- 이재창, 홍후조, 김미진, 임재일(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수업과 교육활동의 특징 분석. **교**

과교육학연구, 18(4), 1135-1161.

장현진 외(2014).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요인 및 지원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광순(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 대비 역량 중심 교과통합수업 설계 방안 제안. **통합교육과정연구**, 7(3), 1-30.

정미경, 주영효, 정바울(2013). 교사 업무경감 정책의 단위학교 추진 실태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0(3), 377-404.

정병흠(2014). 자유학기제에 따른 미술교과 융합교육 방안 연구. **미술교육논총**, 28(2), 59-84.

정영근, 이명준, 김진숙, 이근호, 옥현진(2014).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영수, 김숙이, 김이경, 김민희(2012). 직무분석을 통한 교원의 적정 업무량 산정 방안. **한국교원교육연구**, 29(2), 397-420.

지은림, 원효현, 민경석, 손원숙(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평가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최상덕 외(2015).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최상덕, 신철균, 박균열(2013). 자유학기제 실행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포지션 페이퍼 10(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최상덕, 이상은, 김병찬, 박소영, 소경희, 홍창남(2014).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종합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최준열(2000). 학교 재구조화의 의미 탐색. **교육학연구**, 38(40), 245-257.

홍후조, 임유나, 장소영(2013). 관련자 의견조사에 기초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 탐색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9(2), 33-68.

황규호, 김경자, 소경희, 홍원표, 온정덕(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모델 연구**. 교육부.

Bradley, A.(1998). "Muddle in the middle." Education Week on the Web, Retrieved May 8, 2003, from <http://www.edweek.org/ew/vol-17/31middle.h17>.

Cohen, D. K., Raudenbush, S. W., & Ball, D. L. (2003). Resources, instruction, and research.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25(2), 119-142.

Conley, D. T. (1993). *Roadmap to Restructuring: Policies, Practices and the Emerging Visions of Schooling*. ERIC Clearinghouse on Educational Management, University of Oregon, 1787 Agate Street, Eugene, OR 97403-5207.

Dinham, D. & Rowe, K.(2008). *Fantasy, Fashion and Fact : Middle Schools, Middle Schooling and Student Achievement*. ACEReSearch. fulfillment, 노혜숙 역(2007). **해피어**. 서울: 위즈덤하우스.

- Fullan, M. (2001). *Learning in a culture of change*. Jasley-Bass, CA.
- Lim, Soo-Yin(2003). Parent Involvement in Education. in Olsen, g. w. & Fuller, M. L. (eds.) *Home-school relations: Working successfully with parents and families(2nd ed)*. Pearson Education Inc.
- Poster, C. (1999). *Restructuring: The key to effective school management*. London: Routhedge.
- Ripley, A. (2013). *The smartest kids in the world* Simon & Schuster. 김희정 역(2014). 무엇이 이 나라 학생들을 똑똑하게 만드는가. 서울: 부키.
- Shahar, T. B. (2007). *Happier : learn the secrets to daily joy and lastin*.
- Tubin, D. (2009). Planning an Innovative School How to Reduce the Likelihood of Regression toward the Mean. *Educational Management Administration & Leadership*, 37(3), 404-421.

* 논문접수 2015년 5월 6일 / 1차 심사 2015년 6월 9일 / 2차 심사 2015년 8월 21일 / 게재승인 2015년 9월 7일

* 신철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행정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학교 조직, 교원 교육, 제도주의, 네트워크 분석이다.

* E-mail: ckshin@kedi.re.kr

* 황은희: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학(교육 측정 및 평가 전공)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eunhui@kedi.re.kr

* 김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학(교육행정전공)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eykimedu@kedi.re.kr

Abstract

An Analytical Study on the Operation and Actual State of the Free-Semester Program

Shin, Chol-Kyun*

Hwang, Eun-Hui**

Kim, Eun-Young***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ing an educational policy such as Free-Semester Program, clearly understanding implementation is essential as it plays a vital role in determining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 educational policy. In this context, the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Free-Semester Program operated in order to explore possible directions for improvement for successful futur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To achieve this goal, all members of the school, teachers, students, parents etc. were included as research subjects in the study. Moreover, the study focuses on a comprehensive education that includes curriculum, teaching and learning, evaluation, and career counseling, which make up the main contents of "education activ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 of support, the study investigates the actual conditions of staff and material resources from inside and outside of the school. A survey was conducted and the collected information was comparatively analyzed among two groups of schools, the program operating group and the not-operating group, in order to make substantiv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 the program operati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reveals that the research participants positively recognized the intent and purpose of the Free-Semester Program; however, they have strong negative awareness regarding the consistency and continuity of the policy. Remarkable changes were observed in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but teachers felt pressure to record evaluation results and evaluating fairly. In terms of school support, schools found it difficult to provide staff support and facilities to house activities. Therefore, the study makes three suggestion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First, a differentiated training and advertisement strategy should be provided to the schools operating the program and the schools that are not, according to their different characteristics. Second, the method of linkage between

* First author,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the free-semester and the normal semester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secure program consistency and continuity. Third, continuous efforts to support teachers, such as regenerating a teachers association or having self-directed learning groups of teachers for research on the Free-Semester program, are necessary.

Key words: Free-Semester Program, Operation and actual state, subject of education, educational activities, support environment

